



# 웹진 1호

2015년 6월 8일 발행 / 4.16declaration@gmail.com

## 인권선언, 이렇게 진행되고 있어요

5월 30일 인권선언 촉진자 워크숍 후기  
 - 가원 (유엔 인권 정책센터)  
 인권선언 관련 활동 일지  
 - 5월 9일 추진위원 원탁회의, 그 이후!



## 인권선언 추진단 릴레이 인터뷰



진주 리멤버0416 김수영님  
 성호엄마 정혜숙님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진우님

## 함께 읽을거리

카드뉴스 :: 인권선언 추진단 함께해요  
 4.16 인권선언 1,2차 원탁회의 자료집  
 인권으로 기억하는 4.16

:: 존엄과 안전에 관한 4.16 인권선언 웹진 1호 ::

[인권선언, 이렇게 진행되고 있어요]

:: 5.30 촉진자 워크숍 후기  
- 가원 (유엔 인권 정책센터)  
[http://416act.net/decl\\_archive/2708](http://416act.net/decl_archive/2708)  
:: 인권선언 활동 일지  
- 6월 9일 추진위원 원탁회의, 그 이후  
[http://416act.net/decl\\_archive/2710](http://416act.net/decl_archive/2710)

### [인권선언 추진단 릴레이 인터뷰]

:: 진주 리멤버 0416 김수영님  
[http://416act.net/decl\\_archive/2717](http://416act.net/decl_archive/2717)  
:: 성호엄마 정혜숙님  
[http://416act.net/decl\\_archive/2718](http://416act.net/decl_archive/2718)  
::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손진우님  
[http://416act.net/decl\\_archive/2749](http://416act.net/decl_archive/2749)

### [함께 읽을거리]

:: 카드뉴스  
- 416 인권선언 추진단에 함께해주세요!  
[http://416act.net/index.php?mid=decl\\_archive&document\\_srl=2874](http://416act.net/index.php?mid=decl_archive&document_srl=2874)  
:: 1,2차 원탁회의 자료집  
1차 자료집 [http://416act.net/decl\\_archive/2713](http://416act.net/decl_archive/2713)  
2차 자료집 [http://416act.net/decl\\_archive/2715](http://416act.net/decl_archive/2715)  
:: 인권으로 기억하는 4.16  
평범한 아줌마, 인권에 빠져들다  
<http://hr-oreum.net/article.php?id=3003>  
세상이 절망적일수록 우리는 늘 새롭게 시작할 것이다  
<http://hr-oreum.net/article.php?id=3010>  
4.16 그리고 4.17, 세월호에 중증장애인이 탑승했다면  
<http://hr-oreum.net/article.php?id=3017>

---

# [웹진 1호] 인권선언, 이렇게 진행되고 있어요 - 5.30 촉진자 워크숍 후기

by 인권선언416 posted Jun 07, 2015

---



▲ 지난 5월 30일, 전교조 서울지부 대강당에서 열린 촉진자 워크숍 모습.

가원 / 유엔인권정책센터

왜 그때 얼척없이 눈물이 터져버렸는지 모르겠다. 순식간에 벌어진 신체반응이었다. 쉬이 가라앉지 않는 감정이 당혹스러웠고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유가족인 성호어머니와 동료 활동가들에게 낯뜨겁고 면구스러웠다.

지난 5월 30일, '존엄과 안전에 관한 4.16 인권선언' 추진단 전체회의를 준비하는 워크숍에 참여하였다. 내가 속한 모둠토론 진행자가 던진 "세월호 참사 1년이 지난 지금,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은 무엇입니

까?" 라는 질문에 "진도체육관" 이라고 이 한마디를 내뱉고 더 이상 말을 이을 수 없었다. 왜 진도체육관이었을까. 진도체육관이라는 단어가 음성이 되어 입 밖에 나오는 순간 뭔가 모를 설움이 북받쳐 일순 목이 뻗뻗해졌다. 가족의 생사를 두고 일관되게 거짓말을 해대는 정부와 이를 재생산해내는 언론에 둘러싸여 그들이 느꼈을 고립감과 무력감이 엄습해왔다. 참사가 일어난 지 1년이 지난 지금 말이다. 적어도 내 뇌리에 박힌 진도체육관은 참사가 일어난 직후 벌어진 또 하나의 중대한 인권침해 현장이었다.

워크숍은 참사에 대한 서로의 기억을 확인하고 참사 이후 현재까지 과정에서 가장 심각하게 드러난 문제로 이어졌다. 그 자리에 있었던 누군가는 슬퍼하고 애도할 권리를 박탈당한 문제를, 누군가는 구조받지 못한 권리, 누군가는 진실을 알권리의 침해를 이야기 했다. 그렇게 세월호 참사는 인권의 문제로 드러나기 시작했다. 그래서 무엇이 바뀌어야 할까? 라는 주제에 도달했을 때 우리는 노동자가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세상을 이야기 했고, 이윤이 생명보다 중요한 개인과 사회의 가치 지향을 바꿔나가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성호어머님은 민주주의 가치에 대한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고 같은 맥락에서 나는 연대할 권리를 이야기 하며 집단적 시민의 힘에 대한 자신감을 회복할 때 의미있는 사회 변화가 가능할 것이라는 생각을 공유했다.

오는 6월 20일은 4.16 인권선언운동의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날이다. 전국 각지에서 3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인권선언 추진단의 이름으로 모인다. 무엇이 이들을 이 운동에 동참하게 하였을까. 문득 어쩌면 여전히 거대한 권력 앞에 무력감을 느끼고 어찌할 바를 모르기 사람들로 채워질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 역시 뭐라도 해야 하는데 뭘 해야 할지 몰라 동참하게 된 사람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6월20일 모인 우리는 다시금 우리가 속한 지역사회에서 풀뿌리 토론을 조직하여 세월호 참사가 왜 인권의 문제인지, 내가 목격한 세월호 참사에 대해 함께 이야기 하고, 나아가 내가 속한 공동체 안에서 연대를 확인하는 중요한 자리가 만들어 갈 것이다.

고백하건데 나는 내 울음의 이유를 안다. 유가족들과 나의 심리적 물리적 거리감에 기대어 그들이 겪고 있는 고립감을 애써 외면해 온 것에 대한 죄책감, 그와 더불어 세월호 참사가 우리 사회 모든 구성원과 밀접하게 연류되어 있다는 사실을 모른 척 했기 때문이다. 분명 4.16 인권선언운동은 그 거리감을 줄이는 행동이 될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세월호 참사가 왜 인권의 문제인지에 대한 답을 찾아갈 것이다.

앞으로 전국각지에서 느닷없는 눈물이 터질 것이다. 세월호 참사 1년이 지난 지금, 우리가 기억하는 장면을 떠올리면서 말이다.

---

---

# [웹진 1호] 인권선언, 이렇게 진행되고 있어요 - 인권선언 활동 일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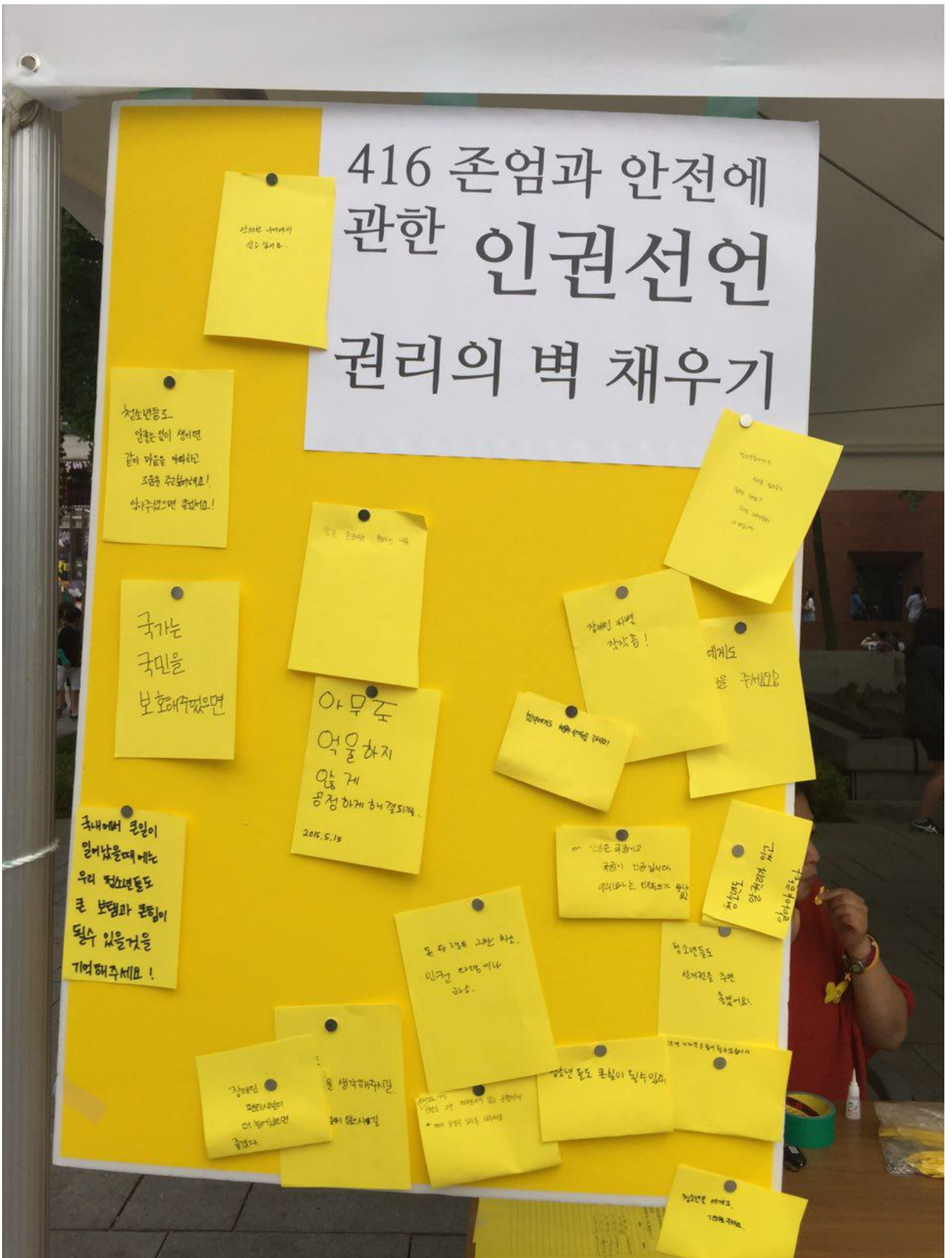
by 인권선언416 posted Jun 07, 2015

---

## ★ 2015.5.15 인권영화제 416인권선언 부스 운영

- 대학로 마로니에 광장에서 열린 인권영화제에서 416인권선언 부스 운영을 함.
- 416인권선언 관련 유인물배포, 세월호 노란리본 나눔, 사진전, 416인권선언에 꼭 포함되었으면 하는 권리들 쓰기, 416인권선언 추진 내용 소통희망자 명단받기 등을 진행함.





▲ 인권영화제에서 진행한 4.16 인권선언 부스. 중, 고등학생들의 관심이 특히 많았다.

★ 2015.5.20 조직팀 회의

(민주노총 15층 소회의실에서 조직팀 10명중 8명 참석)

- 416인권선언 추진단 모집 응답 기본 질문 내용을 수정하기로 함

(이름, 연락처, 이메일, 소속, 인권선언은 000이다, 인권선언에 기대하는 것, 어떤 사람들과 풀뿌리 토론회를 하고 싶은가? 날짜, 장소, 416인권선언에 대한 설명, 추진단의 역할을 포함)

- 416연대 홈페이지에 416인권선언 페이지 개설 요청하기로 함
- 홍보를 위해 주요 온라인 매체 등을 활용하여 416인권선언에 관한 글 연속기고 추진, 추진단 모집 웹포스터 만들기로 함
- '416인권선언은 이런 것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분명히 하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간담회 추진하기로 함. 청년단체(청년유니온, 한청, 알바연대 등), 진보연대, 대학생, 민주노총, 시민단체연대회의, 법률, 연구 부문에 제안.
- 416인권선언 추진단과 소통희망자(416인권선언 친구들로 칭함)를 위한 웹진을 발행하기로 함

#### ★ 2015.5.22 토론기획팀 회의

(416연대 사무실에서 토론기획팀 9명중 7명 참석)

- 토론의 목표, 대상, 진행 등에 대해 논의 함. 세월호 참사를 인권의 관점으로 생각할 수 있게 하고, 나아가 권리의 충돌, 가치의 충돌 관점으로 세월호 사건을 파악할 수 있는 것을 토론의 목표로 함
- 토론 진행시 필요사항, 준비물 논의; 사회자 지침, 인권교육자료, 인권카드, 5면체 토론 기둥(핵심 질문 3가지 기록), 포스트잇(원활한 토론 진행용), CARD NEWS(세월호 사건의 단면을 보여주는), 토론 도우미 지침
- 안산 1000인 토론회를 참고하기로 함

#### ★ 2015.5.28 실행팀 회의

(416연대 사무실에서 22명중 13명이 참석)

- 416연대 사무처장과 논의하여 예산 집행을 416연대에서 일괄적으로 처리하기로 함
- 풀뿌리 토론회를 진행 할 때 같은 지역/단체 추진위원들이 서포트할 수 있는 네트워크 구축 필요
- 416인권선언운동 추진 및 선언 이후 계획에 관한 논의함.
- ; 6.20 토론 프로그램은 5.30 워크숍 진행 후 구체화하기로 함.
- ; 1회 프로그램은 모둠토론진행 기본으로 하고 그 이상의 욕구 충족 필요시 프로그램 고민해보기로 함
- 풀뿌리 토론 및 5.30 촉진자 워크숍 프로그램 구체 논의
- ; 30일 진행자 6명(토론기획팀에서 결정), 5모둠으로 구성하기로 함
- ; 명찰 등 실무는 실행팀이 13시에 모여서 준비하기로 하고, 토론기획팀에서 실무를 정리하여 점검, 역할분담 등을 맡기로 함.
- ; 풀뿌리 토론회를 진행하면서 취합되는 권리항목 정리의 긴밀하고 빠른 반응을 위해 실행팀 내에 콘텐츠팀을 구성하기로 함
- 웹진 1호 준비는 웹진팀에서 구체적으로 정하기로 함
- 각 단체 기관지에 416인권선언 관련한 기사 꼭지 확보 및 언론기고하기로 함. 인터넷 매체를 좀더 논의해서 제안하기로 함
- 416인권선언 실행팀 체계 정리; 실행팀, 조직팀(웹진팀 포함), 콘텐츠팀, 토론기획팀. 실행팀 전체회의는 3~4주 간격으로 진행하기로 함. 각 팀에서 담당 역할을 일상적으로 추진하기로 함
- 6.23(화) 416인권선언 실행팀이 광화문 농성장 지킴이 담당기로 함. 앞으로 월 2회 정도 규칙적으로 맡아보기로 함

#### ★ 2015.5.30 조직팀 회의

(전교조 서울지부에서 조직팀 10명 중 5명 참석)

- 416인권선언에 관심을 가질만한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추진단 모집 방안 논의함
- ; 기존의 추진단에 오프라인에서 알릴수 있도록 웹포스터 출력해서 붙여달라 요청하기로 함 (추진단

에 요청 문자 발송하기로)

; 대학생, 민주노총, 시민단체, 한국청년연대, 생협등 간담회 추진

; 추진단이 함께하고 있음을 느끼며 힘 받을 수 있도록 소통할 방안 모색

; 원하는 추진단에 한해 텔레그램 방 개설 검토하기로

; 추진단 명단 홈페이지에 공유하기로 함

- 416 인권선언을 만들어 가는 행동을 복돋기 위해 추진단 활성화 방안 논의함

; 인권선언의 취지를 담은 카드뉴스 만들기로 함

; 추진단 모집을 위한 구체적인 요구사항을 제시하기로 함

; 전체회의 참여 안내 및 확인

- 추진단 각자의 제안글을 받아 인터넷 매체의 주요 독자층을 고려해 연결하기로 함

- 6월 8일 웹진 1호 발행하기로 함

; 웹진은 e-메일, 416연대 웹사이트 게시, 카톡, 텔레그램, sns 등으로도 배포하기로 함. 웹진에는 인권선언운동 진행소식, 추진단 릴레이 인터뷰, 읽을 자료 등 기재함.

### ★ 2015.5.30 토론 프로그램 및 전체회의 준비 워크숍

(전교조 서울지부 대강당에서 20여명 참석)

- 1부. 모의 모둠 토론 진행

; 6인 3조로 실제와 같이 진행함

- 2부. 토론 결과 발표 및 보완, 세부적인 필요 사항 논의

; 풀뿌리 토론 내용을 성안문에 반영하기 위하여 진행자가 진행 하면서 토론 내용을 정리하여 취합할 수 있는 포맷을 만들기로 함(촉진자 필수 작성. 제출사항)

; 인권과의 매끄러운 연결을 위해 다양한 권리카드를 준비해 활용하기로 함

- 토론 시작 전 시간 활용 필요; 질문을 파악하는 사전 행동 및 지난 1년간의 세월호 진행과정 요약

- 복잡한 도구를 활용하지 않고 진행자의 화려한 진행기술에 의존하지 않은 토론진행 매뉴얼을 준비하기로 함

- 촉진자에게 교양자료 제공하기로 함; 416인권선언 운동에 대한 구체적인 소개 및 관련 자료, 세계 인권 선언문 전문 및 간략 설명, 인권과 관련한 참고서적 목록 및 소개 글 등

- 풀뿌리 토론을 진행하면서 참여자들을 위한 자료 또는 프로그램은 추후에 논의하기로 함

- 6.20 전국 풀뿌리 토론 진행자 토론회를 위한 사전 촉진자 워크숍을하기로 함. 6.16 오후 2시, 민주노총 장소 섭외하기로 함.



---

# [웹진 1호] 추진단 인터뷰 ① 진주 리멤버0416 김수영님

by 인권선언416 posted Jun 07, 2015

---



## 1.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진주에서 리멤버0416으로 세월호 진상규명 행동을 하고 있는 김수영입니다.

## 2. '인권선언은 ooo이다.'라는 질문에 '내 양심'이라고 답해주셨는데 어떤 의미인가요?

창피한말인데 세월호참사 희생자들에 대한 인권을 생각해본 적이 없었어요. 제가 아동에 대한 일을 하면서 인권을 중요시하게 해왔으면서도 아무것도... 그래서 이번을 계기로 생각해보니까 인권을 무시해

온 제 자신이 부끄러워 지더라구요.

### 3. 세월호 참사 이후 지금까지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 또는 사건은 무엇인가요?

전 길거리에서 1인시위를 하다보니 1인시위할때 지나가는 할아버지들한테 폭행당한게 좀 충격이었습니다. 노인분들하면 존경하고 배려해야하는 대상이었는데 다른 노인분들도 있다는 생각에서요. 그리고 친분이 있는 유가족분이 계신데 절볼때마다 죄송하다 우리때문에 힘들데 행동하시게 해서 면목없다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왜 정부는 진상규명을 해주지않아서 유가족과 우리 행동가들이 서로 미안해하고 죄송해하고 고마워 해야하는거죠? 일단 추진단을 제안하는 연락에 그냥 뭐지? 라는 생각에 아 나도 뭐라도 해야겠구나 1인시위 말고 다른것도 뭐라도 해야겠구나 라는 생각해서 함께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 4. 인권선언에 함께 하면서 느낀 것이 있다면 이야기해주세요. (5월 9일 회의에 함께 하시면서 드셨던 생각)

시간이 너무 짧았어요.^^

### 5. 인권선언운동 또는 추진단에 바라는 바

끝까지 포기하지말고 아자!!

TAG •

#웹진, #추진단인터뷰

---

---

# [웹진 1호] 추진단 인터뷰 ② 성호엄마 정혜숙님

by 인권선언416 posted Jun 07, 2015

---



## 1.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단원고 2학년 5반 성호엄마 정혜숙입니다. 성호는 정말이지 너무나 착한 아들이었어요. 성호는 어릴때부터 남다른 이타심, 공감능력이 뛰어난 아이였어요. 제게는 더 없이 착한 아들이었지요. 사제가 되기를 원했고, 그래서 성호 이름의 '성'자도 이를 '성'이 아닌 성스러운 '성'자였죠. 서울에 살다가 해지는 모습이 예뻐서 그 이유 하나로 바다근처로 내려와 살가가 안산에 와서 정착하게 됐어요.

## 2. 인권선언을 함께하시게 된 과정은 어떠신가요?

아이 낳기 전에 7년정도 공무원으로 일했었어요. 그 때 저는 위정자들의 추악한 면들을 많이 경험하

게 되었어요. 국민을 위해 일하기보다는 가진자들의 탐욕과 위정자들의 힘 만들기, 학연, 지연, 계파 등 정의와 복지가 어둠의 손에 먹히는 병폐를 보고 느끼게 되는 것이 힘들었어요. 그래서 공무원을 그만 하게 되었고 정치적인 관심마저도 담 쌓고 살았는데, 결국엔 저한테 이런 일이 생긴거예요. 안산에 서 사고 소식을 듣고 진도로 버스를 타고 내려가는데, TV고 뭐고 아무것도 안 나왔어요. 아, 우리는 고립됐구나. 생각했지요. 쉽게 해결될 일이 아니라는 걸 직감했어요. 성호가 아이들이 살아돌아오기만을 바라고 또 바랬어요. 구조하지 않는 모습을 확인하면서부터는 꼭 우리 성호가 아니더라도 단 한 명이라도 살아와주길 바랐어요. 그 한명이 증언자가 되어주길 바라는 마음으로요.

사고 직후부터 세월호 참사는 신자유주의가 불러온 비극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이후에 벌어졌던 일들은 제가 전부터 조금씩이나마 책을 읽으며 책에서 접했던 상황과 너무나 똑같았어요. 인권이 유린되고 자본이 우선이 된 사회에 비통하게도 내 아들이 희생당한 참담한 분노를 느꼈어요. 그래서 인권선언 운동을 추진한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내가 해야 될 일이라고 느꼈어요. 진상규명, 시행령 등 눈앞에 싸워야 할 문제들도 많지만, 그런 문제들과 함께 이런 인권의 문제도 같이 얘기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처음에는 나서는 유가족 분들이 많아 굳이 나서지 않았는데, 하다보니 한둘 빠지게 되고 하면서 이렇게 앞장 서서 하게 되었네요.

### 3. 인권선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저에게 인권선언은 투쟁입니다. 구조할 수 있었는데도 구조하지 않았고, 불의에 결탁한 사람들이 무고한 이들의 목숨을 한낱 파리 목숨처럼 폐기처분한 이 사회. 이 사회에 인권이 과연 남아있거나 한 건가? 확인해봐야겠고, 다시 되찾아 와야 할 투쟁그것입니다. 사람보다 더 귀한 것이 없고 함부로 할 수 없는 존귀한 것이 생명이라는 것을 이 사회가 다시 되찾아야 할때까지, 인명은 재천이 성립되어야 할 공식임이 악용하지 않게 될때까지요. 그리 되도록 투쟁하는 것이 지켜주지 못한 이들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해요. 또한 정의감 많은 성호를 위해서 남겨진 부모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고 확신해요.

### 4. 인권선언 운동 추진단에 바라는 바

성급하게 가지 않으려고 해요. 쉽게 해결될 일도 아니구요. 옆에 있던 유가족 언니는 너무 학술적으로 접근되는 것 같다고 걱정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전 크게 걱정하지 않아요. 현장에서 토론되고 부딪히다 보면 자연스럽게 바뀌게 되겠지요. 좀 느리게 가더라도 4.16에 빼앗긴 인권을 제대로 인식하고 보호되어야 할 권리를 명확히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국민 모두가 지지하고 수용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인권선언이 존재함에 의미를 두기보다 실천되고 활용됨의 의미로 우리의 삶에 필수 조건으로 가치기준이 자리하게 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싶어요.

TAG •

#웹진, #추진단인터뷰

---

# [웹진 1호] 추진단 인터뷰 ③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손진우님

by 인권선언416 posted Jun 08, 2015

---



4.16인권선언 추진위원과 실행팀에서 실무자 역할도 맡고 있는 손진우님과의 인터뷰를 통해 세월호 참사가 자신에게 어떻게 다가왔는지, 왜 인권선언 운동을 하게 됐는지, 또 인권선언 운동을 하면서 느낀 바는 무엇인지 등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 1. 간단한 자기소개와 단체에서 하고 있는 일에 대해 부탁드립니다.

저는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집행위원장으로 있는 손진우입니다.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에서는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어떤 건강상의 유해·위험 요인에 노출되어 있는지와 관련해서 현장 노동자들 교육하고, 이러한 것들을 막기 위해 정부 정책이나 대책을 요구하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을만한 사안으로는 근골격계 직업병, 현장 CCTV나 감시 등으로 인한 정신질환 문제, 삼성 반도체 노동자 백혈병 및 유해화학물질 노출 위험성 관련 활동을 해왔고, 산업재해를 당한 노동자들의 산재 인정 투쟁도 합니다.

## 2. 처음에 추진위원 등록하셨을 때 “인권선언은 000이다”라는 질문에 어떻게 답하셨고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권리라고 썼던 것 같아요. 언제나 강조하지만 1차적으로 유해·위험에 노출되는 사람들이 대부분 노동자들이거든요. (유해·위험물질이) 밖으로 나가서 지역주민이나 환경에 영향을 미치거나, 일반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각각의 현장에서 유해·위험을 알고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 것, 사회 차원에서 건강하고 안전한 일터를 제공 하는 것, 그게 모든 사람들이 가장 안전하고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방향이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 3. 세월호 참사 이후에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 또는 사건은 무엇이었나요?

풀뿌리 토론할 때는 당혹스러움이라고 말했어요. 저는 제일 처음에 들었던 생각은 의혹이었어요. 어안이 병병했거든요. “왜 안 구하지?”, 상식적으로 빨리 구했으면 다 구조됐다는 소식이 들릴 텐데. 다 구조됐다는 소식이 조만간 나오고, 그걸 가지고 정권이 엄청난 치적으로 삼으려는 소를 하려나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당시 상황에서 울 이유도 없었고 오히려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아무 느낌이 없었는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 죽음이 확인되면서, “이걸 쳐다보고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 때부터는 공황상태였던 것 같아요. “어떻게 이럴 수 있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은 무방비 상태로 단 한명의 구조 소식도 듣지 못하는 상황이지 않았을까...

## 4. 지금 말씀하신 것이 세월호 관련 활동을 하게 된 계기였나요?

계기였다기보다는, 제가 이런저런 활동을 하지만 반도체 노동자 건강과 인권 지킴이 ‘반올림’ 활동도 해왔거든요. ‘또 하나의 약속’ 개봉 이후에 작년 여름에 산재 인정을 받았는데, 유미씨 돌아가신지 만 7년이 되어서야 영화로까지 나와서 사람들에게 알려졌어요. 그 여파로 삼성에서 유가족에게 심심한 위로를 전한다는 사과를 했지만, 아직까지 실제로 유가족을 만나서 직접 사과를 하거나, 재발방지를 약속을 하거나, 진상규명에 대해서 약속하거나 이러지 않았어요. 협상테이블만 열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을 지켜보면서 이건 그 연장선에 있는, 물론 노동자의 죽음은 아니지만, 또 다른 상황이잖아요? 한국 사람들이 모두 지켜볼 수밖에 없었던 사건에 대해서 제대로 밝히는 것 자체가 중요하겠다는 고민을 했어요. 아무래도 안전보건 활동을 하던 사람으로서의 책임감, 미안함이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산재 피해자들 나왔을 때 세상을 바꾸겠다고 하고, 그들의 싸움이 보상만으로 그치지 않고 재발방지와 기업의 책임을 묻고 정부의 보호예방의 책임을 강조하는 형태의 싸움을 계속해왔는데, “그 싸움이 굉장히 미약한 수준이었구나.”, “이 세상은 아이들이나 무고한 시민들이 죽어 가는데 있어서 관련 대책을 마련하는데 어떤 기여를 해왔었나?”, 저뿐만 아니라 저희 연구소 활동가 모든 사람들에게 다시 한 번 생각해볼 수밖에 없는 계기가 됐거든요. 그래서 달라진 한국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권리를 다시 선언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동의를 했고요, 그런 차원에서 내가 역할을 담당하게 된 것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 5. 지금까지 4.16인권선언 운동을 해오면서 느낀 점은 무엇인가요?

인권선언 운동을 하면서 정말 다양한 권리, 인간이라면 기본적으로 누릴 수 있는 권리들과 관련해서 다양한 권리 주체들의 싸움이 벌어지고 있었다는 것을 상호간 확인하는 과정이 소중한다고 생각해요. 제가 인권선언 초기, 작년 존엄과안전위원회 구성될 때 가서 산재피해 당사자들과 함께 활동을 해왔던 사람으로서 처음

한 이야기가 "세월호 유가족들을 투쟁의 주체로 세우지 않으면 이 싸움은 어떻게 갈지도 모르고, 싸움이 안 될 수도 있다"였어요. 실제로 삼성이 사과하고 유가족 혹은 반올림과 이 문제와 관련된 논의테이블을 마련하는데 7년이라는 시간이 걸렸고, 이 싸움은 더 많은 희생자가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시간이 소요될지 모르는 사안이다, 그런 것에 대한 각오를 하고 싸움을 시작해야 될 것 같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인권단체 분들에게 임팩트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인권침해 당사자들과 싸움을 해봤겠지만, 유가족과 함께 하는 싸움을 해온 경험은 사실 산재 피해자들과 함께 하는 단위가 그 동안 거의 전담해오던 것이었기 때문에, 그 싸움이 어떤 어려움을 갖고 있는지, 또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 구체적으로 경험한 사람인 제가 이야기를 나눴어요. 제일 기억에 남는 것은 천주교인권위원회 은정님이 몇 차례 회의 지나고 나서, 천주교인권위원회 같은 단체도 굉장히 많은 인권침해 사안에 대해서 싸우고 투쟁하는데, 은정님이 그랬어요, "노동안전보건 싸움이 있는지 처음 알았고 그걸 위해서 이런 노력을 해온 사람들이 있다는 소중한 것을 인권선언 운동 자리를 통해 처음 알았다." 저도 마찬가지로 아니었을까요? 장애인의 문제나, 노숙인의 문제나, 빈곤, 다양한 영역에서의 권리 주체들의 싸움에 대해 알고 있기는 했지만, 당사자들에게 목숨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권리가 제한 당하고 침해 받고 있었던 것에 대해서 깊이 내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 같아요. 중요하다 하는 것과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다른 맥락이잖아요? 기존에는 그런 한계가 있었던 것 같은데, 저 스스로의 인권에 대한 환기라고 해야 되나? 중요성, 존엄을 다시 확인하게 되는 계기인 것 같아서 소중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 6. 마지막으로 4.16인권선언 운동 또는 추진단에 바라는 바가 있나요?

며칠 전에 연구소에서 이것과 관련해서 몇몇 회원들과 좌담회를 했거든요. 인권운동을 하고 있는 것도 알고 있고 연구소에서 제가 이 사업에 깊이 관여하고 있는 것도 알고 있는데, 처음에 인권과 세월호를 연관짓는 것이 먼 얘기처럼 느껴진다는 회원들의 반응이 있었어요. 집행위원이나 운영위원을 하지 않는 일반회원들과 같이 얘기를 나눴는데, 세월호가 인권 존엄성이 훼손된 결과이고 세월호 장면마다 구체적으로 각자가 느꼈을 아픔의 감각들이 있잖아요? 그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하니까 "이게 정말 무수히 많은 권리들이 침해된 것이었구나!", "진실을 알 권리나 마음대로 울거나 애도할 권리조차 박탈됐던 거구나!", 이걸 서로 확인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선언이 되겠다는 것을 확인했어요. 우리가 아팠던 경험들을 다시 끄집어내는 것이 아픔만 증폭시키는 것이 아니어야 한다는 생각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간으로서의 공통의 감각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구체적인 계기인 만큼, 더 많이, 더 많은 사람들과 각자의 언어로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거기에 세상을 바꾸는 무언가가 달려있지 않겠나,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TAG •

#웹진, #추진단인터뷰

---

[카드뉴스] 416 인권선언 추진단에 함께해주세요!  
요!

by 인권선언416 posted Jun 10, 2015

---

## 우리, 안녕한가요?

세월호 참사가 건넌 질문  
- 인간의 존엄으로부터 인간의 존엄으로 -



4.16 인권선언 추진단 제안 - 1



세월호 참사 이후,  
우리는 무엇을 보았는가



2014년 4월 16일, 전원구조 오보  
476? 172? 304?

세월호 참사 이후,  
우리는 무엇을 보았는가



진실에 이르는 길 . . .  
경찰과 차벽으로 가로막는 정부

4.16 인권선언 추진단 제안 - 3

# 세월호 참사 이후, 우리는 무엇을 보았는가



朝鮮日報

2019년 04월 02일  
01면 (목요일)

## '세월호 배·보상' 학생 1인당 8억2000만원 (위자료 3억 포함한 평균)

교사는 1인 평균 11억4000만원  
일반인 희생자 4억5000만~9억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단원고 학생 250  
명에게 평균 8억2000만원, 교사 11  
명에게 평균 11억4000만원이 지급된다.  
사고를 낸 선사인 흥해선해운을 대신해  
정부가 지급하는 배상금, 국민연금으로  
지급하는 위자료, 보험사가 지급하는 여  
행자 보험금 등이 모두 포함된 금액이다.

세월호 배상 및 보상 심의위원회는 31  
일 1차 위원회를 열어 희생자 등에 대한  
배상·보상 지급기준을 의결했다고 1일  
밝혔다. 심의위원회는 "배상금과 별도로  
세월호 피해구에 특별법에 의거해 국

민연금 등에서 사망자 1인당 위로 지원  
금 3억원(가량)이 지급될 것으로 추정된  
다"고 밝혔다.

단원고 학생 사망자 249명과 실종자 4  
명은 위자료 1억원과 생존 시 기대소득  
3억원 등 4억3811만원의 배상금이 결정  
됐다. 여기에 위로 지원금 약 3억원, 여  
행자 보험으로 1억원이 각각 지급된다.  
교사 사망자 9명과 실종자 2명의 배상금  
은 평균 7억5289만원이며, 위로 지원금  
약 3억원, 교직원 단체 보험금으로 평균  
8000만원이 지급된다.

일반인 희생자 33명(사망 30명, 실종  
3명)에겐 생존 소득과 연령 등에 따라 4  
억5000만원에서 9억원(가량)이 지급된다.  
선정된 기자 기사 A3면

## 모욕과 혐오 보상금을 헤아리는 언론

4.16 인권선언 추진단 제안 - 4

# 달라져야 할 것은 무엇인가



4.16 인권선언 추진단 제안 - 5

# 달라져야하는 것은 무엇인가 - 1



# 달라져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 - 2



4.16 인권선언 추진단 제안 - 7

# 달라져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 - 3



인간의 존엄을 훼손하는 '사회'

4.16 인권선언 추진단 제안 - 8

우리는 무엇을 기억할 것인가



4.16 인권선언 추진단 제안 - 9



# 기억으로부터 선언으로



“인권을 무시하고 경멸했던 것이 과연 어떤 결과를 가져왔던가를 기억해 보라. 인류의 양심을 분노케 했던 야만적인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던가?”

.....

모든 인민과 모든 국가가 '다 함께 달성해야 할 하나의 공통적인 기준'으로서 이 '세계 인권선언'을 선포하는 바이다.”

# 기억으로부터 선언으로

## 제 1조

모든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자유롭고, 존엄과 권리에 있어 평등하다. 모든 사람은 이성과 양심을 타고났으며 서로 동포의 정신으로 행동하여야 한다.

.....

## 제 28조

모든 사람은 이 선언에서 제시된 권리와 자유가 완전하게 실현될 사회적 및 국제적 질서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

존엄과 안전에 관한

4.16 인권선언

세월호 참사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고 말했던 당신,  
참사 이후의 사회는  
달라야 한다고 외쳤던 당신,

416인권선언 추진단에  
함께 해주세요

[모든 사람은 자유롭고, 존엄하며, 평등하다]




416 인권선언 추진단은 2회의 전체회의에 참여하며, 자신이 속한 공동체에서 최소 1회 풀뿌리 토론을 열어야 합니다.

\* 1차 전체회의는 7월 11일 (토) 오후 1시에 수운회관(안국역)에서 열립니다.

416 인권선언 추진단으로 함께해주실 분들은 7월 4일까지 아래 링크에서 응답해주세요.

<http://416act.net/416declaration>

 4.16 선언 = H 416act.net

## [인권으로 기억하는 4.16] 평범한 아줌마, 인권에 빠져들다

김연지



### [편집인 주]

세월호 참사를 기억하겠다는 약속은 참사 당일에 벌어진 일을 복기하는 데에 그쳐서는 안 된다. 4.16연대는 '존엄과 안전에 관한 4.16인권선언'을 추진하며 인권으로 4.16을 기억해보자고 제안한다. 기억은 행동이다. 세월호 참사 이전과 달라져야 한다는 열망은, 무엇이 어떻게 달라져야 할지 끊임없이 질문하는 행동이 되어야 한다. <인권오름>과 <프레시안>에 매주 공동 게재되는 연재기사가 하나의 실마리가 되기를 바란다.

내 아이만 잘 키우면 된다고 생각했던 평범한 엄마였다. 그런 내게 세월호 참사는 처음엔 엄청나게 많은 꽃다운 아이들이 구조되지 못하고 죽어야만 했던 비극적인 사건이었다. 그 슬픔을 못 이겨 뛰쳐나와 뭐라도 하자 하며 시작한 세월호 활동으로 보낸 지난 일 년, 그 사이 상상도 못 했던 꼴을 많이 봐야만 했다.

억울하게 자식을 잃은 부모에게 이 나라가 솔하게 남발했던 거짓말, 국회의원의 모욕적인 발언과 행동, 대통령의 영혼 없는 쇼, 유가족의 피눈물 섞인 호소에는 침묵하며 권력에만 유리하게 왜곡을 일삼는 기레기 언론, 특히 유가족 앞을 가로막더니 이제는 대놓고 유가족과 국민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경찰, 그리고 이런 참사가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인데도 그저 남의 일인 양 유가족을 폄훼하는 사람들... 이들을 보면서 “이게 나라냐? 저게 사람이냐?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 있냐?”라는 말밖엔 나오질 않았다. 나아지는 것 없이 계속되는 이 말도 안 되는 상황들 때문에 “지겨우니까 그만하고 집에서 네 애나 잘 봐라”는 행인들의 야유를 들어도, “그럴 시간에 돈 벌 궁리를 해라”하는 친정엄마의 핀잔을 들어도, “네가 그래도 달라지지 않아”라는 언니의 말을 들어도 절대로 그만둘 수가 없었다.

그러면서도 가끔은 “나는 왜 아직도 이려고 있지? 나는 왜 멈출 수 없지?”라는 생각을 하곤 한다. 아마 단순히 사고 당시 느꼈던 내 슬픔을 극복하기 위함이었다면 “그 정도 했으면 할 만큼 했어”라는 말로 멈출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



▲4.16 인권선언 2차 원탁회의가 5월 9일 열렸다. 앞으로 지역 풀뿌리 토론 등을 거쳐 더 너르고 깊게 인권선언을 함께 제정해나가는 과정을 가질 것이다. 4.16연대 홈페이지에 관련한 소식 및 자료를 올릴 예정이다.

일 년간 죽어라 애썼지만 나아지는 것 없이 반복되는 상황에 지쳐가고 자신의 일임을 깨닫지 못하고 외면하는 사람에 대한 갑갑함이 더해가던 지난 3월, 4.16 인권선언 제정 추진단에 합류해달란 요청을 받았다. 사실 세월호 활동을 함께 하는 이가 도와달라고 하니 머릿수나 채우자는 생각으로 수락했다. 그러면서 무지렁이 아줌마가 무슨 도움이나 되려나, 세월호랑 인권이랑 무슨 관계가 있나 싶은 마음이 들기도 했다. 수락 후 내가 함께 할 일이 무슨 일인지는 알아야 할 것 같아 이전저런 자료를 찾아서 읽어보게 되었다. 40년 가까이 살면서 인권이란 단어 자체에 대해 생각해 본 적도 없었기 때문에 미처 모르고 지나쳤을 뿐이지 참사의 원인부터 지금까지의 과정이 인권이 경시된 데에서 비롯된 것임을 깨달을 수 있었다.

[인권 : 인간이 인간답게 존재하기 위한 보편적이고 절대적인 인간의 권리 및 지위와 자격]

돈보다 귀한 생명, 인간이 인간에게 해야 할 최소한의 도리, 인간이 인간으로서 함께 해야 할 혹은 범하지 말아야 할 행위들만 자각하고 있었다면 세월호 참사부터 이후 유가족과 국민이 겪어야만 했던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설사 일부 썩은 인식을 지닌 사람들로 인해서 벌어졌다 한들 더 많은 사람이 인권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면 함께 분노하는 사람들이 더 많지 않았을까.

그러면서 막연한 감정으로 행동하면서 내 속에서 일었던 여러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인권이란 단어를 통해 얻을 수가 있었다.

“어떻게 사람한테 이럴 수가 있어? 어떻게 사람한테 이럴 수가 있어?”라는 탄식이 절로 나오는, 억울하다거나 부당하다는 표현만으로는 부족했던 일 모두

가 인권을 경시한 행동이었다.

그동안 나는 “유가족의 슬픔을 공감하는 이유에서 시작해 내 아이를 위해 세월호 활동을 해요”라고 말하면서도 한편으론 ‘언제까지 당장 내 아이에게 더 좋은 볼거리, 먹을거리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시간과 노력을 쪼개어 막연히 내 아이가 당할 수도 있는 일이라는 이유만으로 이려고 있을 것인가?’라는 생각을 하곤 했다. 그런데 인권의 구체적인 의미와 사례들을 접하며 물질 만능 때문에 대부분의 일의 우선순위가 인권과는 너무나도 동떨어진 것이 이 사회의 문제점이라는 것을 푼 집어 알게 되었고, 나는 우리 아이가 '인간답게, 인간다운 대접을 받으며 살 수 있는 사회'를 원하기 때문에 멈출 수 없다는 걸 깨닫게 되었다.

지금과 같은 사회에서라면 귀한 내 자식에게 좋은 먹을거리만 먹이고, 애써 좋은 것만 보게 하며, 고급 옷을 입히고 애지중지 키운다고 해서 안전하게 자랄 수 없을 것이고, 과목별 사교육과 유학으로 공부를 시켜서 사회에 내보낸다 한들 사람대접을 받으며 살기 힘들 것이다. 온갖 명품들로 치장한다고 해서 나의 권위가 살아나지는 않는다. 먹고살기 힘든 현실을 핑계 삼아 가만히만 있다면 그건 스스로 노예의 삶을 선택하는 것이다.

그러나 인권이란 단어와의 짧은 만남에서 변화한 나를 보면서 세월호 참사를 비롯해 현재 사회의 문제점을 인식하지 못하던 사람이 인권이란 의미를 깨닫게 된다면 달라지지 않을까, 함께 움직여 변화의 물결을 더 크게 하는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갖게 되었다.

4.16 인권선언은 선언문 자체를 잘 만드는 것으로 끝이 아니다. 풀뿌리 토론을 통해 인권의 의미에 대해 생각해보고, 스스로의 존엄함을 되찾기 위한 움직임을 만드는 준비단계인 것이다. 이에 더해 세월호를 통해 변화야겠다고 다짐했던 사람뿐만 아니라, 오늘날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감에 고단함을 느끼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운동이다. 한 사람이 열 걸음 앞서 걷는 것보다 열 사람이 함께 손을 잡고 걸어 나간다면 그 길은 더 넓어질 수 있다. 무지렁이 아줌마도 함께하는 과정에서 깨달음을 얻을 수 있었듯 “내가 무슨 인권을...” 이런 마음은 잠시 접고 4.16 인권선언 추진단에 합류한다면 당신도 스스로의 존엄을 찾아가는 과정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덧붙임**

김연지님은 다음카페 '엄마의 노란손수건' 회원입니다.

**관련기사**

- [인권으로 기억하는 4.16] 가치의 공동체를 이뤄가는 큰 발걸음
- [인권으로 기억하는 4.16] 누구에게도 평등한 4.16 인권선언

**관련사이트**

- 4.16연대

## [인권으로 기억하는 4.16] 세상이 절망적일수록 우리는 늘 새롭게 시작할 것이다

류미례



### [편집인 주]

세월호 참사를 기억하겠다는 약속은 참사 당일에 벌어진 일을 복기하는 데에 그쳐서는 안 된다. 4.16연대는 '존엄과 안전에 관한 4.16인권선언'을 추진하며 인권으로 4.16을 기억해보자고 제안한다. 기억은 행동이다. 세월호 참사 이전과 달라져야 한다는 열망은, 무엇이 어떻게 달라져야 할지 끊임없이 질문하는 행동이 되어야 한다. <인권오름>과 <프레시안>에 매주 공동 게재되는 연재기사가 하나의 실마리가 되기를 바란다.

2014년 4월 16일, 세월호와 함께 온 나라가 슬픔에 가라앉았다. 그 후 1년, 기억은 여전히 잊히지 않은 채 우리의 시간을 지배하고 있지만, 그 기억은 단일하지 않다. 대통령의 가짜 눈물과 언론의 거짓말, 유병언의 의심스러운 죽음과 유언비어가 담긴 문자메시지 같은 것들이 세월호의 진실을 호도해왔고 쓰레기 시행령은 진상규명의 길에 강력한 걸림돌이 되고 있다. 역사의 중요한 순간마다 기억의 패권을 쥔 자들은 기억을 왜곡하거나 은폐함으로써 기억의 국가화 작업을 시도해왔고 주류언론은 그 작업의 선두에 서왔다. 유가족들은 이러한 왜곡과 망각에 맞서 진실을 밝히기 위한 먼 길을 걸어왔다. 416연대 미디어위원회는 그 길을 함께 걷고자 하는 이들로 구성되어 있다.



▲ <바다에서 온 편지2> 스틸컷

우리들은 다큐멘터리 감독들이다. 또한 잊지 않겠다는 약속을 여전히 가슴에 담고 있는 시민들이다. 세월호 참사 1주기를 거리에서 유가족들과 함께 보내며 캠페이션과 물대포로도 막지 못했던 시민들의 마음을 만났다. 종편을 비롯한 주류언론들은 1주기 추모 행사를 폭력이라는 키워드로만 포장했지만 우리에게는 연대의 시간으로 기억된다. 수많은 시민들이 여전히 잊지 않고 있으니 힘내라는 마음을 전하고 싶어 했다. <바다에서 온 편지 2>는 바로 그 마음을 전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1주기를 한 달 앞두고 유가족들을 인터뷰했을 때 가족들은 모두들 똑같이 말했다. 우리는 여전히 2014년 4월 16일을 살고 있다고. 사무치는 그리움으로 진실을 알고 싶어 하는 그 마음들은 여전히 간절한데도 정부와 주류언론은 보상금 8억 운운하며 돈 문제만 부각시켰고 포털의 댓글들로만 보자면 유가족들 빼고는 모두들 세월호는 잊고 싶어 하는 것만 같았다. 그래서 <바다에서 온 편지 2>가 필요했다. '416시간 광화문행동'의 현장, 4월 16일 연대의 밤, 4월 18일 범국민대회에 참여했던 수많은 시민들에게 두 개의 물음을 공통적으로 던졌다. 1번,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있는지. 2번, 유가족들에게 하고 싶은 말.

눈물로 답을 대신한 이들도 많았지만 잊지 않겠다고, 함께 하고 있다고, 일상적으로 그 마음을 표현할 길이 없었지만 뭐라도 하고 싶어서 이 자리에 나왔다고, 시민들은 말했다. 그 말의 앞과 뒤에 빠짐없이 하는 말들이 있었다. "이상한 사람들이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 사람들은 아주 적어요.", "TV에 나오는 말 믿지 마세요. 모두가 가족들을 응원하고 있어요."



▲ <바다에서 온 편지2> 스틸컷

주류언론의 전략은 잘 먹혔다. 다만, 내 친구들만, 내 주변 사람들만 유가족들 편인 것 같다는 착각. 우리 빼고 세상 사람들은 다 주류언론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이젠 지겹다'라고 생각할지도 모른다는 외로움. 유가족들만 고립된 채 지쳐갈지도 모른다는 안타까움. 그래서 4월 18일의 광장에서 만난 시민 전유정 님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기억을 하고 있구나. 되새겨주고 있구나. 그래서 안심되면서도 더 많은 친구들을 데리고 오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라고 말하는 것을 들으며 <바다에서 온 편지 2>가 지금 이 시기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기념일은 왜 필요한가. 새털처럼 많은 날들이 어제와 다르지 않은 일상으로 다가왔다가 과거가 되어 흘러간다. 기념일은 서로 다른 이들의 일상에 공통의 기억을 불러주는 날이다. 각자의 자리에 흩어져있던 마음들이 4월 16일, 같은 장소에 모여 연대의 문화제를 열고 함께 보았다. 그리고 잊지 않고 있다는 마음을 꽃에 담아 희생자들의 영정에 바치려고 했다. 국가 권력은 그 길을 가로막았고 유가족들을 광화문 누각 아래 고립시켰다. 그 날, 광화문 누각 아래로 가지 못한 시민들이 노숙을 하고 있는 유가족들에게 함께 하고 있다는 마음을 전하기 위해 길 하나를 사이에 두고 밤을 새웠던 시간들. 4월 18일, 유가족들을 만나기 위해 전국에서 모여들었다가 물대포와 캠페이션에 혹사당하면서도 결국 차벽을 무너뜨린 시민들. <바다에서 온 편지 2>에는 그 시간들이 담겨있다.

<바다에서 온 편지 2>를 연출한 김재영 감독의 가편집을 보던 날, 우리 중의 한 사람이 그랬다. "사실 나도 외로웠다"고. 그리고 이 영화가 위로가 되었다고. 김재영 감독은 서울의 2015년 4월 16일부터 18일의 시공간에서만이 아니라, 그 이전과 이후, 대한민국의 전역에서, 세계 곳곳에서 세월호를 기억하는 수많은 이들의 몸짓과 마음을 담았다.

우리들은 다큐멘터리 감독들이다. 다큐멘터리는 누군가의 이야기를 듣는 일이다. 지금 우리에게 그 누군가는 세월호 유가족들이다. 고통의 무게를 견뎌오며 잊을 수 없는 시간을 버티며 지나는 그 시간 안에 진실이 있다고 믿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이야기를 듣는다. 듣는 일은 그 시간을 함께 겪는 일이다. 그래

서 우리도 슬프고 외로웠다. 그 시간을 함께 지나오며 우리가 다짐했던 말이 있다. 세상이 절망적일수록 우리는 늘 새롭게 시작할 것이다. 무엇을 어떻게 기억할 것인가. 같은 질문을 반복하며 우리들은 이 슬픔의 시대를 카메라를 든 채 견고 있는 중이다.

**덧붙임**

류미례님은 416연대 미디어위원회에서 활동하는 다큐멘터리 감독입니다.

**관련기사**

- [인권으로 기억하는 4.16] 평범한 아줌마, 인권에 빠져들다
- [인권으로 기억하는 4.16] 가치의 공동체를 이뤄가는 큰 발걸음

인권오름 제 439 호



## [인권으로 기억하는 4.16] 4.16 그리고 4.17, 세월호에 중증장애인이 탑승했다면

최제민



### [편집인 주]

세월호 참사를 기억하겠다는 약속은 참사 당일에 벌어진 일을 복기하는 데에 그쳐서는 안 된다. 4.16연대는 '존엄과 안전에 관한 4.16인권선언'을 추진하며 인권으로 4.16을 기억해보자고 제안한다. 기억은 행동이다. 세월호 참사 이전과 달라져야 한다는 열망은, 무엇이 어떻게 달라져야 할지 끊임없이 질문하는 행동이 되어야 한다. <인권오름>과 <프레시안>에 매주 공동 게재되는 연재기사가 하나의 실마리가 되기를 바란다.

만약 2014년 4월 16일 세월호에 전동휠체어를 탄 중증장애인이 탑승했다면 생존 가능성이 얼마나 되었을까요? 발달장애인이 탑승했었다면요? 아마도 한국사회에서 생활하는 사람이라면 두 경우 모두 긍정적으로 대답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저 또한 그렇습니다. 장애인권 활동을 하면서 비장애인의 평범하고 안전한 일상조차 장애인들에게는 위협하게 다가오는 상황이라는 것을, 나아가 장애인들에게는 훨씬 더 큰 위험인 '위급상황'이 언제든 발생할 수 있음을 계속 알게 됩니다. 한국사회에서 위태로운 세월호 안의 사람들과 같은 상태로 장애인들은 위험한 일상을 살아가는 것이죠.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바로 다음 날이었던 4월 17일 사망한 故 송국현 동지의 죽음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송국현 동지는 24년 동안 시설에서 거주하다가 지역사회에서 살기 위해 2013년 10월 '탈시설'했습니다. 장애등급이 3급이라는 이유로 송국현 동지에게는 활동보조인 서비스 신청 자격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의료적인 것대로 장애를 판정하는 국민연금관리공단의 판정 체계 안에서 송국현 동지는 활동보조인 없이도 일상을 살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죠. 집에 화재가 발생해 불이 벽을 타고 침대 위 천장까지 올라왔지만, 송국현 동지는 자신의 몸 위로 떨어지는 불을 피하지 못하고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언어장애가 심해서 소리도 지를 수 없었고, 중증의 신체장애로 침대 위에서 내려오지도 못했습니다. 세월호 참사 소식에 다들 마음이 무거웠던 시간이 계속되던 가운데, 4월 17일 송국현 동지의 소식은 많은 장애인과 활동가들의 가슴을 먹먹하게 했습니다.



▲ 2014년 4월 서울광장 세월호 분향소 옆, 국가인권위 앞에 마련된 故 송국현 동지 분향소 (출처: 비마이너)

故 송국현 동지의 죽음은 단순히 국민연금관리공단의 행정 실수로 일어난 사건이 아닙니다. 장애등급제의 반복적인 폐단으로 일어난 일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장애등급제의 폐단으로 사람이 죽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이전에 발생된 여러 사건으로 이미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2012년 활동보조인 시간이 충분히 제공되지 않아 사망한 故 김주영 동지, 활동보조인이 퇴근하고 어머니가 집에 돌아오는 사이 호흡기가 빠져 사망한 故 허정석 님, 그리고 한 장애인이 추운 겨울 수도관이 터졌는데 피하지 못해 사망한 사건을 공단은 알고 있었습니다. 故 송국현 동지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 그와 관련된 수많은 경미한 사고와 징후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故 송국현 동지는 이전의 죽음과 동일한 이유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렇기에 4.17은 4.16과 마찬가지로 참사입니다.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장애인의 장애 상태도 직접 눈으로 파악하지 않은 채 의사들의 진단으로만 장애 정도를 판단하지 않았다면, 故 송국현 동지는 이렇게 허망하게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장애등급제가 이미 정해진 예산 범위 안에서 의료적 기준으로만 서비스 제공을 결정하는 기제로 악용되지 않고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만큼 서비스를 제공했다면 故 송국현 동지는 이렇게 허망하게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생명보다 돈이 더 중요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우리는 이런 야만적인 사회에 살고 있었던 것일까요? 왜 우리는 이런 야만적인 사회에서 살아야 할까요? 저는 세월호 참사와 같은 일은 장애인을 지역사회로부터 분리하고 배제하는 차별의 기제로부터 시작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가 장애인을 지역사회에서 분리하지 않고 다양성을 존중하고 안정성을 중시하는 사회로 발전해왔다면 세월호 참사와 같이 괴물의 세상에서나 있을 법한 일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같은 사람으로서 함께 더불어 살아갈 책임이 있는 故 송국현 동지를 죽도록 내버려두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는 너무 익숙해져 버렸습니다.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노동권과 생존권, 안전권 등 인권을 존중받는 사회는 낯설지만, 집 안에서 제한적으로 생활하거나 지역사회로부터 배제된 채 시설에서 살아가는 방식은 익숙합니다. 만약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사회였다면, 우리 사회는 지금보다 누구에게나 안전하고 평화롭게 살 수 있는 사회이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현실은 이제 장애인뿐만이 아니라 획일화되지 않은 사람들이 지역사회로부터 계속 멀어지는 상황입니다. 노인요양시설과 정신요양병동, 장애인거주시설의 숫자는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탈시설-자립생활 운동은 장애인뿐 아니라 사회 구성원 모두가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사회를 지향합니다. 지역사회에서 장애인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차별의 기제를 제거하고 인권적인 사회를 만들어가는 운동으로서 사회 구성원 모두를 위한 운동인 것이죠. '2014년 4월 16일 세월호에 휠체어를 탄 장애인이 있었다면 생존할 수 있었을까요?'라는 질문에 '물론입니다. 그 사람은 당연히 살았을 것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한국사회가 된다면 모두가 안전하게 존엄을 지키며 살 수 있는 사회로 우리 사회가 발전했다는 뜻일 것입니다.

따라서 4.16 인권선언은 탈시설-자립생활 운동과도 만납니다. 우리는 4.16 인권선언을 통해 모두가 안전하고 품위 있게 존엄을 지키며 생활할 수 있는 사회와 어떤 사람이든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가는 공간을 만들어갈 것입니다. 지역사회에 다양한 사람들이 있을 때, 생명보다 이윤을 중시하는 자본의 야만성에 브레이크를 걸 수 있고, 그렇게 무채색 한국사회는 다양한 색을 입으며 변화할 것입니다. 4.16 인권선언을 통해 장애인, 노인 등 사회적 약자라고 불리는 이들이 지역사회로 나아갈 수 있기를, 더는 '사회적 약자'로 머물지 않길 기대합니다.

#### 덧붙임

최재민님은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활동가입니다.

#### 관련기사

- [인권으로 기억하는 4.16] 세상이 절망적일수록 우리는 늘 새롭게 시작할 것이다
- [인권으로 기억하는 4.16] 평범한 아줌마, 인권에 빠져들다